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6.18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이 동 엽(02-2100-2591)		담 당 자	이 영 평 사무관 (02-2100-2592)	

제 목 : 최근 보도내용 관련, 「금융그룹감독제도의 도입 의의와 운영방식」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[조선일보 6.17일자 보도, 한국경제 6.18일자 시론 관련]

1. 기사 내용

- 조선일보는 6.17일자 “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, 2년째 ‘無法천지’” 제하 기사에서,
 - “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, 시행령도 아닌 ‘정부의 권고(모범규준)’라는 사실이다”,
 - “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” 등으로 보도
- 한국경제 6.18일자 “제2 공정거래법 될 ‘금융그룹 통합감독법’” 제하 시론에서,
 - “대표회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”,
 -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, “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회사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” 등으로 논평

2. 설명 내용

◆ 조선일보 기사,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,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,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립니다

[1]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의 의의

□ 금융그룹감독은 「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」을 관리·감독하는 제도임 ※ '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상 그룹리스크 유형' 참고 첨부

- 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「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」에 한계가 있음*

* 예) "그룹 계열사간 출자(A社→B社 출자, B社→C社 출자)로 조달한 자본"은 ① 그룹 내부에서 ②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
→ 現 업권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내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

- 「금융그룹감독」을 통해 금융계열사 "간(間)" 거래(예: 자본의 중복 이용), "그룹차원" 익스포져(예: 집중위험) 등을 관리·감독함

※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'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

□ IMF 위기시 대한생명,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, 최근 동양사태*(13년)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으로 작용

* 예) '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.1만명, 1.6조원 피해

-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임

[2]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 운영방식 [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]

◇ 현재 「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」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,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

[1] 「금융그룹감독」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

- EU, 미국,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,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중임*

* '99년 「금융그룹감독원칙」(Joint Forum Principle) 채택 후 '02년 EU부터 도입 시작

- IMF도 '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(FSAP: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)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*하였으며, 금년 FSAP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

*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

☞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,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

[2] 「금융그룹감독」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

- “은행·보험·증권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”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됨
-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,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

※ 국제규범 관련내용 (Joint Forum 제정 「금융그룹감독원칙」)

- ▶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며, 은행·증권·보험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*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

*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

3 「금융그룹감독」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

- 우선적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하되,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*에 한정하여 “보충적으로” 관리·감독

* 예)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, 집중위험,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

-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(예: 주채무계열 제도)가 작동하고 있다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(보충성)

※ 국제규범 관련내용 (Joint Forum 제정 「금융그룹감독원칙」)

- ▶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임.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하고자 함
- ▶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, 위험전이, 위험집중, 이해상충, 내부 거래 등의 위험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

4 「금융그룹감독」은 「상법」의 틀 안에서 운영

-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,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·창구역할 수행
-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「위험관리협의회」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

※ 국제규범 관련내용 (Joint Forum 제정 「금융그룹감독원칙」)

- ▶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음
- ▶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

3) 法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

- 「금융그룹감독법안」 2건*이 국회 계류중인 바, 입법 노력을 지속

* '18.6.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, '18.11.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(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)

-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

□ 法 제정 전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, 모범
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

○ 시범운영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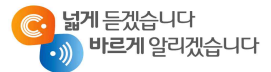
-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써 도입영향, 여건평가 등을 위해
시범운영이 필요하나,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
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

○ 시범운영 과정을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
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※ 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

구 분	금융리스크 발생 경로	Joint Forum 감독원칙 관련 부분
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그룹자본의 적정성 (Capital Adequacy)

① 자본의 중복이용 (double or multiple use of capital)	▶ 그룹 계열사간 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은 손실 발생시 자본으로 활용 곤란	§17(a) *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시 자본 과다계상을 적절히 포착
② 그룹간 교차출자 (intra-group double or multiple gearing)	▶ 우호그룹간 교차출자를 통해 금융그룹 자본의 충실성이 훼손될 가능성	§17(e) * 서로 다른 그룹간 지분 보유시 자본 과다계상을 초래
③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 (debt-downstream)	▶ 모회사가 자본의 질이 낮은 차입자금으로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	§18 * 과도한 레버리지 및 모회사 차입 으로 자회사에 이전 행위 고려
④ 자본의 이전가능성 (transfer of capital)	▶ 외부지분이 높을수록 그룹내 신속한 자본재배분에 제약	§19 * 내부 자본이전과 관련한 잠재적 제약사항 등을 고려

2. 위험관리의 적정성 (Risk Management)

⑤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(intra-group transaction)	▶ 거래상대방인 계열사의 실적악화가 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직결될 가능성	§28(b) * 그룹 중요 내부거래, 익스포저를 효과적으로 포착·평가·보고
⑥ 부외계정 투자 (off-balance sheet activities)	▶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	§29.1 * 부외거래 등 그룹내 모든 종류의 위험을 포괄·관리

3. 지배구조 (Corporate Governance)

⑦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(conflict of interest)	▶ 금융계열사가 금융그룹 이익에 반하여 그룹 계열사 지원에 동원될 가능성	§10(d) / §10(e) / §10.6 1) 그룹 지배구조가 예금자 이익 및 소속회사 건전성을 감안 2) 그룹 지배구조가 그룹내부의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